

모두 발언

2023. 11. 24. (금) 14:00

금융투자협회(23F)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정태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주관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I IPO 시장의 의의와 투자자 신뢰

‘IPO 시장’은

혁신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유망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IPO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IPO 시장은
그간 지속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혁신 기업이 다수인 코스닥 상장사의
'22년 매출액 (273조원)은 GDP의 13% 에 달하고
해외 매출 (86조원)도 수출 총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산업부에서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의 절반(47.9%, 307사 중 147사)이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처럼 IPO 시장이
혁신기업의 육성 경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도 힘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을 믿고 자금을 맡긴
다수의 투자자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Ⅲ 오늘 간담회의 의의와 논의 내용

이에 오늘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 발굴 및 실사 주관증권사 부터
상장 신청 및 심사 한국거래소 ,
증권신고서 심사와 사후 공시 금융감독원 까지
상장·공모 프로세스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최근 상장한 기업들이
실제 IPO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개선 필요 사항들을 발행기업을 대표하여 말씀해주실
코스닥협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상장·공모 프로세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짚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사의 프로세스도
보다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장과 공모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간의 협력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IV 맺음말

참석자 여러분 !

그 동안 우리는 IPO 시장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로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어렵게 쌓은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투자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봅시다.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